

크리스마스 메시지

- 윤재웅

벽두새벽부터 전기가 나가길 수차례. 두툼하게 차려 입고도 벌벌 떨며 옆집과 맞닿은 담벼락에 붙어있는 두꺼비집을 리셋하러 나가야 했다. 더는 추운데 나가기 싫어 방에 들어와 히터를 최대한 낮추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 처량했다. 그때만큼은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라는 사실도,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신나는 캐럴, 하얀 눈 덮인 빨간 벽돌집 굴뚝, 거기로 피어나는 하얀 연기가 담긴 카드,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는 설렘도 기억해낼 수 없었다. 전기만 나가지 않기를 바랐다. 다시 육체의 온기가 회복되면 마음의 온기도 회복되고 크리스마스도 제 자리를 찾아올 거라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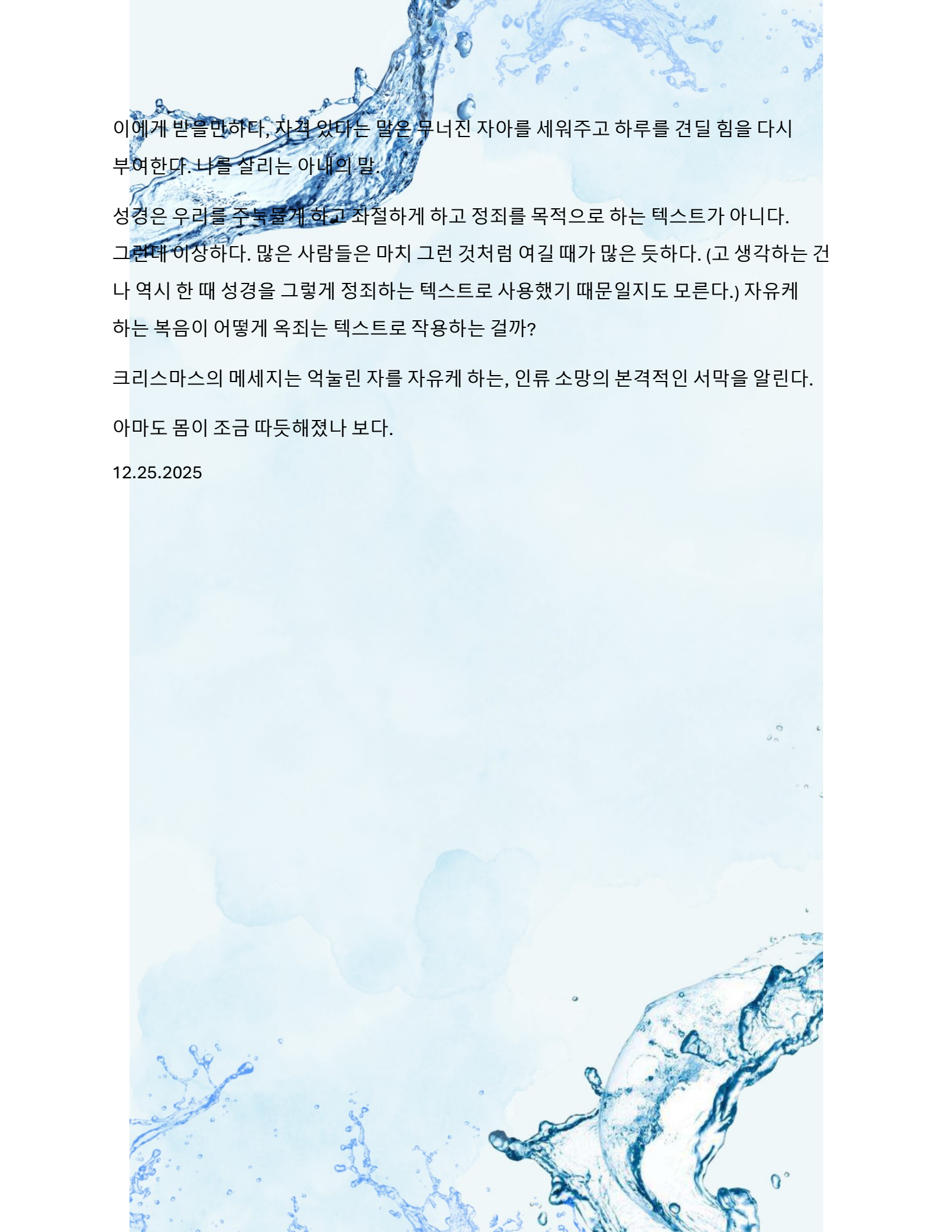
인생의 혹한을 지나는 이들에겐 평범한 일상을 지나는 이들이 특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이렇지 않을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구나 그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히터를 낮추어 놓으니 이젠 전기가 나가지 않네... 하지만 난 파카를 벗지 못하고 잠 못들고 대기하고 앉아있다. 별은 참 밝네.

시차 때문에 카톡에선 크리스마스 축하 카드가 오가지만 난 딱 세상에 살고 있는듯 (실제로 그렇지만) 그런 메세지에 잠시 무감각해졌다.

한참을 앓았다가 다시 이불속으로 몸을 뒹어 몸에 온기가 돌아올 즈음, 아기 예수나 그의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에게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서로에게 보내는 훈훈한 인삿말이나 따듯한 감성과는 사뭇 다른,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최근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아내로부터 들었던 "유 디저브 잇!" 당신은 자격 있어! 혼밥을 먹기 위해 이것저것 찾다 혼자 먹기에는 과한 비싼 음식이 땡겼다. 그 이야기를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들었던 말이었다. 그 말이 특히 고마웠고 감동이었던 이유는, 나는 무엇을 deserve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격 없는



이에게 받을만하다, 자격 있다는 말은 무너진 자아를 세워주고 하루를 견딜 힘을 다시 부여한다. 나를 살리는 아내의 말.

성경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 듯하다. (고 생각하는 건 나 역시 한 때 성경을 그렇게 정죄하는 텍스트로 사용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유케 하는 복음이 어떻게 옥죄는 텍스트로 작용하는 걸까?

크리스마스의 메세지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인류 소망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린다.

아마도 몸이 조금 따듯해졌나 보다.

12.25.2025